

# 한옥

# HANOK

고전서 김보겸 박두진 서은서 이은정  
장근호 장근서 장근남 문희민 서진근

한옥

HANOK

## 한옥

---

미소나무 | 김보겸 ..... 4

한옥에서 | 박두진 ..... 21

일탈 | 이은성 ..... 28



---

# 미소나무

---

희야

나는 세상이 재미 없어질 쯤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날 즐겁게 하는 건 없어.  
희야, 아프고 나니까 내가 마치 죽은 사람 같아.  
내가 살아있는 걸까? 죽고 난 뒤 사후 세계와 와버린 걸까?  
매일같이 아리송한 꿈들을 꺾.  
그런데 그 모든 꿈들은 누군가의 슬픔을 담고 있어.  
나의 슬픔, 내가 아닌 슬픔, 곧 나의 것이 될 슬픔..  
모든 것의 슬픔.  
희야, 알 수 없는 기분에 잡아 먹히고 있어.  
내일은 너무 멀어.  
희야, 날 좀 꺼내줘.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어.

향수라는 감정을 비로소 알 것 같아.  
비로소, 느끼는 것 같아.  
정말 느끼는 걸까? 느낀다고 할 수 있는걸까?  
이렇게나 건조한 게 세상이었나?  
희야, 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죽어버린 걸까?

-

이곳에 온 지도 대략 삼 일이 지났다. 아니, 삼 일이라고 추정되는  
시간들이 지났다. 지난 삼 일은 내게 죽은 삼 일이었다. 죽은 눈 죽  
은 숨 죽은 몸을 갖고 보내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입 안이  
건초를 머금은 듯 텅텅하다. 삼 일 간 먹은 게 없어서 그런가?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삼 일을 보냈다. 가끔 허기가 질 때면 물로 목을  
축이고, 이후엔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다. 잠에 들지 않은 시간에는

텅 빈 하늘을 보았다. 도시의 차가운 불빛 한 점 없는 텅 빈 하늘. 이곳엔 차가운 불빛으로 가득한 푸른 도시보다는 따뜻하다. 산등성이  
는 추울 거라는 희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희는 나의 오랜 친구이다. 언제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하느냐고 묻는다면 희는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고 씩스러워 했겠지만, 그리고 나 또한 줄곧 그런 척을 해왔지만, 사실 난 희와 처음 만난 날부터 친해지던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것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이었다. 서울 외곽에 새로 지어진 한옥 마을에 살게 된 나는 새로 지어진 동네로 이사 온 탓에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었고, 그건 같은 동네에 살던 희도 마찬가지였다. 희는 남들보다 좀 더 할 말은 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수궁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쓰는 사람이었다. 나와 정반대였던 희는 나에게 항상 멀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아이였다. 한 동네에 살고 집도 아주 가까웠지만, 서로의 영역이 너무 달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달까. 정반대였던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은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큰 여자아이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막 자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을까. 희와 내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던 수련회에서 함께 방을 쓰면서부터였다. 반에서 가장 키가 컸기 때문인지 아니

면 어느 또래와 같지 않은 성숙한 성격 때문인지 우리 둘을 아이들 무리에 끼지 않았고, -나는 무리에 끼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희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무리에 끼지 않은 것이었다. - 어찌다보니 남게 되어 한 방을 쓰게 된 것이다. 희와 함께 보낸 첫 밤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우리 또래의 아이들은 얼마나 우스운지, 키가 큰 여자아이로서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러다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지 따위의 것들에 대해 말하다보니 어느새 닭이 울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학창시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희와 함께하던 시절은 마치 필름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 같았다. 온갖 따뜻한 빛들이 착색된 필름, 꺼내볼 때마다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 사진같은 순간뿐이었다. 학교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먹는 대신 학교 현관 계단에 냅다 드리누워 햇빛을 가득 쬐며 광합성을 하고, 날이 좋은 날에는 몰래 옥상에 올라가 숨겨온 도시락을 나눠 먹고, 공부를 하다가 우울해지는 때에는 추운 밤 공원을 뛰어다니며 한껏 웃어버리었다. 희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면 울적한 마음도 그저 간지러워지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글을 쓰고 싶던 나와 화목한 가정을 꾸려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던 희는 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우리는 서로와 함께 나아갔다. 희와 나의 세상은 한없이 꿈꾸고 한없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던 희와

부모님 친하지 못했던 나는 서로에게 엄마이자 언니, 선생님이자 친구 그 이상을 아우르는 존재가 해주었다. 그런 우리가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먼저 도시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렇다, 우리를 먼저 떠난 건 나였다. 나는 대학에 가 글을 배우겠다며 호기롭게 동네를 떠났고, 희는 그런 나를 보며 어엿한 작가가 될 거라며 한결 같이 응원을 건넸다. 처음 도시에 왔을 때 희와의 관계는 도시에 오기 전과도 같았다. 매일같이 통화하며 희와 나의 하루를 나누고, 희와 나의 꿈을 나누었다. 하지만 내가 작은 문학상에서 등단에 실패하고, 희의 부모님이 이혼 하시게 되자, 우리의 연락은 점차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점점 서로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였다.

희를 마지막으로 본 건 삼 년전, 딱 이 집 앞에서였다. 스무살 겨울에 헤어졌던 우리는 어느 새 서른 살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고, 나는 글로는 밥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출판사에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편집 거리를 받으며 소위 프리랜서로 전전하고 있었다. 몇 년만에 만난 희는 많이 수척해보였다. 그림에도 그 밝은 모습만은 잃지 않은 것만 같아 나는 굳이 무슨 일은 없냐고 안부를 묻진 않았다. 실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에 굴복한 내 모습이 부

끄럽게 느껴져 애써 무언가 할 말이 있어보이던 희를 무시하고 작은 인사만 건넨 후 집로 들어왔다. 그날 이후, 희는 딱 한 달 뒤에 나를 영영 떠나갔다. 희가 스스로 날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희가 나를 떠난 이후로, 나는 도시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아주 춥고 배가 고프는 날이면 희에게 편지를 쓰곤 했다. 수취인에게 영영 배달되지 않을 편지. 아니, 배달되지 못할 편지. 나의 마음은 그렇게 허공을 떠돌았다.

희가 떠나가며 내게 남긴 건 그 흔한 편지도, 사진도, 또는 모든 진심을 눌러담은 일기장도 아니었다. 희는 내게 이 집을 남겼다. 희가 날 떠난 후 지난 삼 년간은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희와 나의 청춘이 담긴 곳, 희가 살아 숨쉬던 곳, 희가 울고 웃던 곳,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안에 남은 어린 희마저도 죽어버릴 것만 같아 무서웠다. 언젠가 희와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가 끝난 날, 동네 공원 벤치에 누워서 밤하늘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난 커서 아주 좋은 엄마가 될래.’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애에게 내 모든 사랑을 줄거야,’ ‘그리고 아주 멋진 집에 살거야.’ ‘아주 멋진 집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의

엄마가 될래 나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으셨다던 부모님과 일찍이 부터 떨어져 혼자 살던 희의 눈이 그날따라 서글퍼보였던 건 기분 탓일까. 희는 그렇게 우리의 학창 시절을 보낸 동네에 작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고, 내게 그 집만을 남긴 채 떠나갔다.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딱 삼 일 전이었다. 그 날도 여느 때와 같았다. 도시의 축축하고 어두운 자취방에서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한 나는, 여느 때와 같이 냉장고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있던 차가운 식빵을 베어물며 여느 때와 같이 침대 위에 앉아 출판사에서 온 메일을 보고 여느 때와 같이 편집할 거리를 정리했다. 그때 갑자기 창 밖으로 자취방 앞 화단에 심어진 작은 소나무를 보았고, 그게 희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였다는 걸 떠올렸고, 희와 함께 그의 작고 아름다운 집에 심어놓은 작은 소나무가 떠올랐다. 희와 내가 즐겨하던 것 중 하나는 가만히 앉아서 나무를 구경하는 일이었는데,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동네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를 구경하다보면 우리의 하루는 이미 어둑해져있기 일쑤였다. 그 중 희가 가장 좋아하던 나무는 작은 소나무였는데, 작고 아담하고 나무가 홀로 서있는 게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다. 희는 동네에서 그런 작고 아담한 소나무를 발견할 때면 ‘미소나무’라는 이름을 붙이며 깔깔 웃어대곤 했다. 그에 반해 내가 가장 좋아하던 나무는 버

드나무였는데, 가장 ‘자연’ - 스스로 그러하다 - 처럼 생겼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어느 때와 같은 하루의 아침에 희의 집에 있는 작고 아담한 미소나무를 떠올린 나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길로 자취방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해 방을 빼고 이곳으로 온 것이다. 집에 들어온 직후 나는 작고 아담하지만 메말라가던 미소나무에 물을 주고, 곧장 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희의 방이었던 곳에 들어와 잠을 청했다. 그렇게 삼 일이 지난 것이다.

희의 집은 딱 희 같았다. 작고 아담한 한옥이었던 희의 집 담벼락에는 희가 좋아하는 붉은 장미들이 심어져 있었고, 집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정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뚫려 있었는데, 중정에는 사람 한 명이 앉기 좋은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기에 하늘 보기를 좋아하던 희의 애정이 묻어난 공간이었다.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따르는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희의 색깔이 그대로 담기어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으면서도 작고 귀여운 색채감 있는 가구들로 꾸며진 내부. 특히 밖을 보는 것을 좋아하던 희였기에 창 만큼은 크게 뚫려있었다. 이 집은, 그저 희가 살아 숨쉬는 것만 같았다. 집 곳곳에서 느껴지는 희의 숨에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기분 탓일까?

이곳에 온 지 삼 일이 지났다. 지난 삼 일은 죽은 삼 일이었다. 이제 서야 희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슬픔이 물 밀듯 밀려오는 것인지, 지독한 열병을 앓았다. 삼 일을 죽어서 보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느 때와 같이 희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나의 친구, 나의 엄마, 나의 언니이자 나의 청춘. 청춘을 담은 필름의 끝이 녹아내려버린 듯, 희를 잃은 나의 삶은 형체를 갖추지 못했고, 무한한 꿈, 무한한 사랑을 소망하던 아이들은 길을 잃었고, 그렇게 희를 보낸 후 지나버린 나의 삼 년 또한 죽은 삼 년이었다는 것을, 이 집에 온 뒤에 깨달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다. 다시 내쉬다. 자취방의 쿵쿵한 곰팡이 냄새가 빠져나가고 술향이 폐 속에 그득히 채워진다. 희와 나의 추억을 한 움큼 삼킨 기분이었다. 희가 내게 남긴 건 무엇일까. 마지막 순간에 희가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이 집에서 희는 무엇을 이루고 싶었던 걸까.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섭다.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 세상이 무섭다. 희와 나를 버린 세상이 무섭다. 나를 버린 희가 무섭다. 편지 한 통 없이 나를 떠나간 희가 무섭다. 희 없는 나의 삶이 무섭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의 풍경이 다시금 보인다. 안락의자에 앉아 보니 대문 위로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인다. 가을을 머금은 느티나무의 머리가 바람에 따라 흔들린다. 저 느티나무는 오랫동안 저곳에서 계절을 머금으며 살아왔겠지. 희는 이곳에서 많은 나무를 보아왔겠지. 중정을 둘러싼 네 개의 기둥이 집을 지탱한다. 네 개의 기둥 한가운데 놓인 안락의자는 희를 더 외롭게 했을까. 아니면 희를 지탱해주었을까.

언젠가 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옛날에 한옥은 지붕을 다 흙으로 지었대. 나무의 뿌리, 떨어진 도토리알과 솔잎... 살아가던 모든 것들은 품었던 흙이 주는 따뜻함이 있잖아.” 그에 나는 김이 빠진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던가, “에이, 이곳의 한옥들은 지붕에 나무판을 깔았는 걸?” 그에 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었지. “그래도 난 이곳이 좋아. 산이 날 보듬고 온갖 나무들이 날 보듬잖아.”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지난 삼 일은 꿈의 연속이었다. 고열로 나의 온전한 정신은 이곳에 오던 날 저녁 해의 일몰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꿈에서 나는 많은 얼굴들을 보았다. 그리운 얼굴들. 중학교 때 자주 가던 아이스크림집 사장님, 동네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던 언니, 희와 함께 자주 갔

던 밤 공원에서 항상 허공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있던 할머니 … 그리고 희. 스쳐지나갈 뿐이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웠다는 것에 웃음이 나왔고, 그 중 부모님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결국 모든 그리움의 끝에는 희가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웃음이 나왔다.

- 이건 지독한 향수병이야.

희가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낮게 읊조렸다. 희야, 넌 지금 날 비웃고 있니, 아니면 날 걱정하니. 난 지금 아무 감정도 느낄 수가 없어. 희 없는 희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자니 다시금 허기를 느꼈고, 뭐라도 먹지 않으면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 싶어 부엌에 들어선다. 희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절에 걸쳐 급식은 사랑 없는 차가운 밥으로 성장기의 우리를 자라게 했을 지언정 온기조차 없었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희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에게 그 흔한 ‘따뜻하고 애정어린 집밥’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희는 ‘미래에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위해 요리를 연습할거라는 서툰 변명으로 요리를 시작해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고자 했고, 어찌다보니 부엌은 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희의 요리는 서툴지만 건강했고, 따스했다. 학교가 끝나고 작은 원목 식탁에 둘러앉아 먹었던 희의 된

장국, 옥수수밥, 계란말이와 김자반은 단출하지만 나에겐 소중한 집밥이 되어주었다. 부엌은 작은 빨간색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싱크대가 놓여있었고, 역시나 하늘을 보기를 좋아하던 희였기에 그곳에도 작은 창이 나있었다. 한쪽에 놓인 작은 원목 식탁에는 지금껏 희가 지은 밥의 향이 가득 베여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 없었다. 삼 년간 비어진 집이니 당연한건가. 냉동실에는 희와 내가 즐겨먹던 냉동 물만두만 남겨져 있었다. 희는 요리에 재미를 붙이고 밥 짓기를 좋아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매일같이 국과 반찬을 갖추어 식사를 차리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냉동 물만두였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엔 밥 대신 냉동 물만두를 조리해 먹었다. 하루는 찌서, 하루는 튀겨서, 하루는 구워서 ... 공장에서 만들어진 냉동 물만두였지만 우리의 입맛대로 조리를 해서 먹으면, 그 어떤 반찬보다도 맛있게 느껴지던 것은 희와 함께했기 때문이었을까. 냉동 물만두를 구워 원목 식탁에 앉자, 밥을 한껏 퍼서 들고 오는 희가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 갑자기 눈 앞이 아득해진다. 희야, 넌 작고 아름다운 이 집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니.

-

입천장이 까지도록 만두를 먹었다. 희와 내가 금요일마다 먹던 냉동 물만두의 갯수는 삼십 개였고, 우리는 각각 열다섯 개를 맞춰 먹는 대신 어느 날은 내가 좀 더, 어느 날은 희가 좀 더 먹기도 했다. 두 명이서 먹던 만큼을 혼자 먹으려 하니 입천장이 까지는 건 당연한 건가. 삼 년만에 먹는 냉동 물만두는 도시의 그 어떤 맛있는 식당의 만두보다도 따뜻하고 맛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배가 불렀다. 배가 부르고 나니 다시 집 안 곳곳이 눈에 밝힌다. 희는 책 대신 영화를 즐기던 사람이었고, 대중 음악 대신 오래된 음악들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희의 집 한쪽 벽면은 비디오 테이프와 lp판으로 가득차있었다. 그 중에서도 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였는데, 미스터 다아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희였기도 하다. 희의 비디오 테이프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열여덟살의 가을, 희와 찍었던 필름 사진을 발견한 건 그때였다. 그 사진은 아주 큰 느티나무를 담은 사진이었다. 그 날은 가을이 한창 동네에 물든 날, 평소처럼 동네의 찻집과 책방을 가는 대신 시내로 나가 떡볶이를 먹고, 옷과 화장품을 가득 사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희의 집에 모여 수능이 끝난 후에 대해 상상하며 한껏 들뜬 상태로 떠들었고, 문득 희가 동네의 습지에 가고 싶다고 외친 건 그때였다. 하루 종일 도시의 소음과 인파에 기가 빨렸으나 뭐라나. 희는 필름 카메라를 챙겼

고, 우리는 그렇게 한창 가을의 저녁을 지나고 있는 습지로 갔다. 습지에 자리한 큰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를 희는 보호수라고 하였고, 느티나무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을 보호해줄거라며 당차게 외치었다.

- 당장 느티나무를 보러 가야겠어.

삼 일만에 집 밖으로 나왔다. 이미 동네는 해가 지어 석양으로 가득 물들어 있었고, 어디선가 솔향이 불어왔다. 습지는 동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습지의 입구는 뒤엎켜 자라난 덩쿨과 이름 모를 나무들에 가려져 숨겨져 있었다. 당장 느티나무를 보러가야겠어. 당장 희를 만나야겠어. 이미 어둑해진 거리에 습지는 가로등 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밤바다를 보는 것만 같았다. 희야, 무서워. 결국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무서워. 내가 혼자일까 무서워. 어디선가 다시금 솔향이 불어왔고, 습지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습지의 입구에는 코스모스가 잔뜩 피어있었다. 잔뜩 핀 형형색색의 코스모스와는 달리, 습지 안은 모든 빛을 빼앗긴 채 죽어버린 것만 같았다. 고요히, 고요히, 고요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밥 짓는 소리, 아기 웅알이 소리, 연인이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는 소리, 꽃잎이 흩날리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오랜 시간이 지나자 어둠만 존재하는 듯 보였던 습지 안도 점차 형체가 구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걸음, 발을 떼고 습지 안으로 들어섰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습지의 중앙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은 죽어버리고 오직 나무 스치는 소리만이 남았다. 이따금씩 멍꽝이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다시 한 걸음, 버들과 갈대가 스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또 한 걸음, 작은 개울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은 것처럼, 고요한 습지 안에서 나는 열여덟로 돌아가 나무에 한껏 안기었다. 한 걸음씩 발을 옮길 때마다 세상은 더욱 고요해졌고, 폐 속에 가득 들어찬 슬향에 비로소 살아 숨쉬는 듯 했다. 어느 새 어둑해진 하늘에 가로등이 켜졌고, 나무 사이로 간간히 오렌지빛 불빛이 비추어 들어왔다.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작은 개울을 지나치자 습지의 끝에 다다랐다.

- 느티나무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고, 다시 한 번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 이거였구나.

그건 희였다. 그리고 동시에 열여덟의 나였다. 글을 쓰던 나였고, 밥을 짓던 희였으며, 나무를 보던 희이자 하늘을 보던 나였다. 그건 어린 날의 희와 나, 무한히 꿈꾸고 무한히 나아가던 어린 청춘들이었다. 동시에 죽어버린 희였고, 죽어버린 나였다.

마을의 아주 큰 나무. 마을의 중앙에서 자란 느티나무는 평지가 끝나고 산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이전에, 집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하나 둘 온기를 나누기도 이전에 자라났다. 작고 아담하고 서툴렀던 어린 느티나무는 단단히 자라나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을 지키는 정령이 되었다. 습지 안으로 작고 소중한 소리들을 머금으며, 작고 서툰 것들을 보듬으며 살아왔다.

무서워 말고 나와

무서워 말고 나와

느티나무가 외친다.

무서워 말고 나와.

무서워 말고 나와.

희가 외친다.

-

희에게

희야, 계절이 바뀌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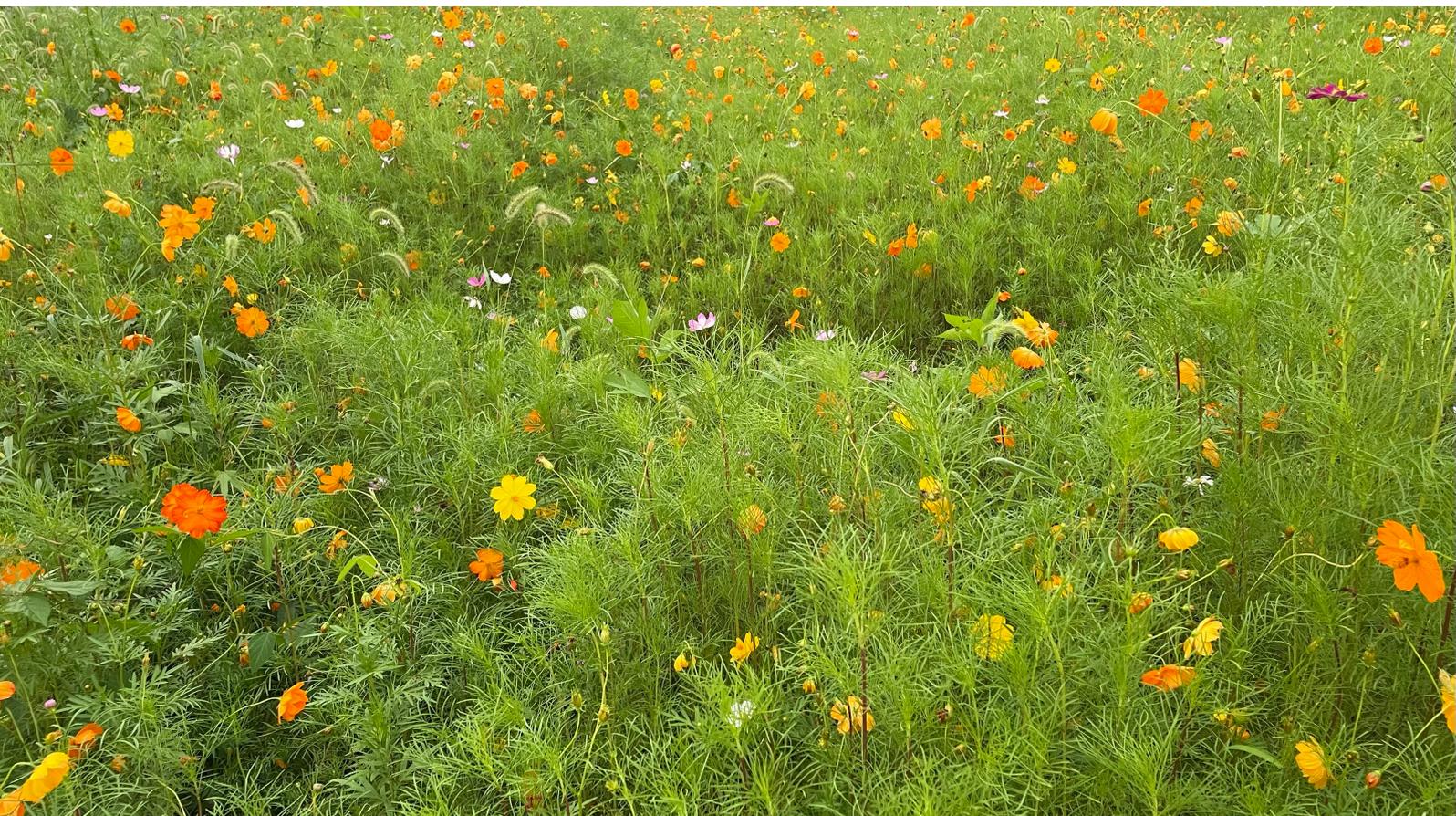
정확히는, 추위가 가시고 싹이 움트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겠지. 너의 미소나무는 잘 자라나고 있어. 이젠 단단히 자라나 집을 받치고 있지. 계절이 바뀌니 넌 또 나무를 보러 오려나. 나는 이번 봄에도 깊은 잠을 자야겠어.

희야, 이제 나와. 무서워 말고 나와.

너의 세상으로.

단







---

# 한옥에서

---

나무 앞에 선 사람 앞에 나는 서있다. 나무 앞에 선 사람이 몸을 기울이면 나무 옆에 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무 뒤에 선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봐선 이 나무는 어린 나무임에 틀림없다. 어리고 가는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흔들리다 제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 일으킨 바람으로 나무 앞에 선 사람을 흔드는 모습을 보다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된 것만 같다는 착각에 몸이 가벼워진다. 나의 의식은 나무 앞에 선 사람에서 나무 자체로, 나무 자체에서 자연 전체로 유연하게 확장된다. 그러다 나는 자연 앞에선 그 무엇도 될 수 없음에 외로워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외로움까지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우쭐해진다.

나는 나의 사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내 삶을 바친다. 소원이 있다면 나를 객관화하여 타자의 입장에서 나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나는 소설을 쓰고 있다. 나와 소설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분리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글은 내가 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임과 동시에 내가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고 있는 안전한 집이다. 내가 소설 쓰기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 건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의 일이다. 불문학을 전공하고 한국 출판 산업에 뛰어든 나는 좋은 사람들 곁에서 작은 연대의 소중함을 느끼며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그런 충분한 환경에서도 결핍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었으니, 결핍의 순간에 나는 슬한 자기혐오를 느끼며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20대 중반의 나에게 찾아온 결핍은 역설적인 병증이였다. 풍족하기에 한쪽이 결핍 되었다 느끼는 이 증세를 나는 너무 뒤늦게 깨달아버렸고, 깨달았을 당시의 나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상태였다.

어린날부터 나는 소설과 영화를 삶의 곁에 두고 자랐다. 일주일에 몇번이고 화가였던 아버지 옆에 붙어 서점과 영화관을 번갈아 오간 순간들은 내 취향의 뿌리가 되었고 그때마다 아버지와 주고 받은 대화들은 취향의 살갓이 되어 두둑하게 커져갔다. 그러니 내가 소설과 시 창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몇번은 내가 지은 시와 산문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그 글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 내게 선물해주시곤 했다. 난해하고 심오해 보였던 아버지의 그림에 나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내게 선물된 그림은 대우가 달랐다. 나는 이따금 ‘선물’이라는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그려진 그림이라는 사실을 상기했고 그래서 조목조목 기법과 구도의 의미를 따지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런 어린 시간들이 그리움의 뒤편으로 자리를 내어줄 무렵 나는 과거에 대해 충분히 감상적이지 않을 만큼 기억으로부터 일어나왔고 걸어온 거리 만큼 나는 내 유년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에 쓰게 된 나의 첫 단편이 <삶의 구조> 였다. 글을 읽어본 문학 선생님은 매년 작게 열리는 청소년 문학 축제에 작품을 내 볼 것을 권유하셨고 나 역시도 내 유년이 가장 안전한 상태로 보존된 이 글을 인정 받는다면 실력을 인정 받음과 동시에 내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흔적까지도 인정 받는 것이라는 부푼 마음에 별 생각없이 출품하게 되었다. 모든 ‘재능 발견’의 서사가 그러하듯, 내 삶도 전형적인 서사의 곁을 따라갔다. 문학 축제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도 부족해 그해 열리는 문학 대회란 대회에 작품을 출품했고 그때마다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숭한 과정을 통해 나는 능력과 재치 앞에서 당당해지는 법을 배워갔고 겸손을 흉내낸 거만함의 표정을 읽어갔다. 이로써 ‘글쓰기’라는 행위가 내 삶에서 차지하

는 의미는 걸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글쓰기는 내 유년의 기억과 자취가 깃든 추억임과 동시에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일, 세상의 경멸과 비아냥 속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내가 무너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학 공부와 학교 생활을 하며 문학적 사유는 빈곤해져 갔고 하루 하루의 할당된 쾌락을 채우느라 급급하게 하루를 보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대부분이 그렇듯 평범하게 인문대 동기들을 따라 취직을 해 대한민국의 그저 그런 직장인으로서 그저 그렇게 돈을 벌고 그저 그런 남자와 잠을 자고 그저 그런 방에 살며 그저 그런 효도를 했다. 대중음악과 상업영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게으르고 무능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 조차 이제는 가증스러운 허영으로 느껴졌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매 출근길마다 직장인들의 양복 냄새를 맡으며 실감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인간사가 그렇듯 나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생활에 무의식적으로 적응을 해나갔고 무의식을 의식할 때마다 스스로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나는 내 결핍과 내제된 증오를 더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이 증오가 타인에 대한 혐오와 멸시로 이어지기 전에 근절해야 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생각 끝에 한달동안 단편 하나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휴가를 내고 집을 나오기로 다짐했다. 장소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나는 생활의 테두리가 넓어져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문제는 어느 장소에 한달동안 머물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게스트 하우스를 하는 친구에게 물어도 보고

직접 세어하우스도 알아보고 했지만 그림에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단절의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허망해진 모든 것들을 던고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었다. 있을 곳을 찾아 다니다 보면 나 자신이 싱거워지는 순간도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 보일지를 가늠하다 모든 걸 그만두고도 싶었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질 뻔한 나의 머리에 번뜩 얼마전 방문한 모교의 이미지와 모교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옥 마을의 이미지가 스쳐갔다. 모교의 풍경과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다른 시간을 그리며 살아왔는지를 절감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변한 풍경과 거리의 살풍경함에서 위안을 얻었다. 학교 앞에 새로 생긴 한옥의 풍경의 낯설음은 오래된 골목의 정다운 얼굴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렇게 알게 된 은평 한옥 마을을 검색 하다 우연히 나는 한옥의 방 하나를 빌릴 수 있게 되었다. 한옥 마을 구석진 곳에 위치한 집이어서 문학과 박물관을 지나야만 갈 수 있었다. 처음 집에 방문한 날, 나는 모든 생명이 생동하고 있음을,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여기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느꼈다. 의연한 한옥의 기와 끝에 닿은 소나무는 세상에도 변치 않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듯했다.

방에 누워 나는 천장을 가만 보다 나무의 결을 따라 사유를 정리했다. 가족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나무 한 토막에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혐오의 얼룩을 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 걸려있었다. 어느새 천장은 내 머릿속 풍경이 되었고 그 속에서 계절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라고는 계절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 낮과 밤의 변화 속에서도 내 자리를 찾아 지켜나가는 것이었

다. 집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어린 아이들의 응석과 구경 나온 연인들의 먼 음성은 이따금 잠에 들려 하는 나를 깨웠다. 이런 삶의 순간들에 집중하다가도 나는 불현듯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자연스럽게 이겨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해가 질 무렵에는 펜과 수첩을 들고 거리에 나갔다. 문장을 써야겠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몸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분명한 힘이 내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 힘은 내가 8년동안 잃은 무언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고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발소리는 귀를 울렸다.

얼마 걷지 않아 나는 습지에 도착했고 나무들은 서로 엉켜 작은 요새처럼 나를 감춰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왔던 건 굵고 늙은 나무도, 작고 가는 나무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그림 속에서 보았던 그 나무와 닮은 구석이 있는 나무. 내가 첫 단편을 써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을 때 아버지가 그려준 나무와 닮은 나무에 내 시선은 머물러 있었다. 그 어린 나무 앞에 서서 나는 나를 향하던 아버지의 표정을 상상해보았다. 내 글을 읽으며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삶을 지탱하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나무와 그의 얼굴을 겹쳐보며 나는 내가 지나온 모든 과거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추억이 된 기억들에게 안녕을 빌었다. 나는 이토록 변했건만, 변해서 이렇게 못난 얼굴이건만 내가 품은 그의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오롯이 존재했다. 순간 나무 앞을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내가 지나갔다. 그는 나무 앞에 서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의 등은 유독 굽어 있었다. 기울어진 어깨와 산만한 머리가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 그의 옆에 서서 당장이라도 그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고 싶었다. 그의 모든 과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뒷모습은 꼭 우리 아버지 같았다.

나는 펜을 들고 그의 뒷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옆에는 문장을 두서 없이 나열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무 앞에 선 사람 앞에 나는 서있다. 나무 앞에 선 사람이 몸을 기울이면 나무 옆에 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무 뒤에 선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봐선 이 나무는 어린 나무임에 틀림없다. 어리고 가는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흔들리다 제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 일으킨 바람으로 나무 앞에 선 사람을 흔드는 모습을 보다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된 것만 같다는 착각에 몸이 가벼워진다. 나의 의식은 나무 앞에 선 사람에서 나무 자체로, 나무 자체에서 자연 전체로 유연하게 확장된다. 그러다 나는 자연 앞에선 그 무엇도 될 수 없음에 외로워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외로움까지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우쭐해진다. 내 모든 기억들은 나뭇가지에 걸려 춤을 춘다. 나뭇가지는 허물없이 부딪히며 정겹게 서로 인사한다. 전하지 못한 고백도, 비밀이었던 사랑도, 끝내 보일 수 없었던 눈물도 서로의 가지에 기대어 화해하는 모양이다. 그런 나무 앞에 선 사람 앞에 나는 서서, 조용히 그이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기울여 보려 한다.







---

# 일탈

---

영훈은 아직도 회삿일이 버거운 능력 없는 직장인이다. 회사에서의 그는 언제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바빴고 평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남들의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카페인에 절여진 흐릿한 동공과 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눈꺼풀, 다듬어지지 않은 턱수염은 그런 그의 고된 생활이 외모에서 드러나는 것만 같았다. 그에게 직장에 대한 보람, 의미를 찾을 여유 따위는 없었으며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반복할 뿐이었다.

영훈은 오늘도 그의 능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받았다. 늘상 어리숙하지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기에 상사로서는 그에게 업무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오늘도 야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다. 그래서 커피 스틱 세 개를 컵에 털어 넣은 후 물을 따르러 정수기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때 갑작스레 그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평소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다시피했던 그는 간만에 울린 전화를 의아해하며 받아들였다. 내용인즉 전세 사기로 인해 그가 며칠 전 전세로 들어온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는 심란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때문에 평소보다 살짝 늦은 시간인 7시에 회사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회사에서 나온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는 당분간 지낼 곳이 필요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는 친구가 많이 없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몇 있던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지며 점차 멀어졌고, 그에게 남은 친구는 두세명 정도가 다였다. 영훈은 초조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그들 모두 영훈의 부탁을 들어줄 여건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대상은 그의 부모님이었다. 그의 본가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전화하길 미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아들 무슨 일이니?”

전화를 받은 그의 엄마가 물었다.

“엄마 다름 아니고 저번에 집 구했다 한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

그가 답했다.

“그렇게 잘 좀 알아보고 구하지 그랬어, 당장 지낼 곳은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당분간 거기 있어도 될까?”

“안 될게 뭐 있겠니 비도 오는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와”

한숨 돌린 그는 서둘러 차를 몰고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빗물이 자꾸만 차의 앞유리를 더럽혔다. 와이퍼가 여러 차례 지나감에도 유리가 깨끗해지는건 잠시 뿐이었고, 다시 빗물에 시야가 가려졌다. 평소라면 그다지 화낼만한 일은 아니었을 테지만 그는 저기압인 날씨와 앞서 닥친 일로 인해 신경이 한층 예민해져 있었다. 짜증이 극에 달한 그는 미간을 한껏 찌푸리며 열린 옥설을 뺏어냈다.

본가에 가까워지자 여러 채의 한옥집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부모님은 그 한옥 중 한 곳에 살고 있었다.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엇하나 튀는 느낌의 집이 없이 비슷비슷한 모양새로 지어진 한옥들이었다. 이러한 마을의 특징 때문에 가뜩이나 기억력이 약했던 그는 종종 부모님의 집을 찾지 못해 마을을 헤매곤 했다.

마침내 본가에 도착한 그가 차에서 내리자 빗방울에 섞인 흙과 나무 냄새가 그의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엄마 나 왔어.”

그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의 엄마가 그를 반겼다.

“금방 왔네, 밥은 먹었고?”

아니 별로 생각이 없네. 그냥 일찍 씻고 자려고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뒤, 영훈은 욕실로 향했다. 아홉시를 조금 넘겼지만 몹시 피곤했기에 바가지에 물을 담아 몇 차례 끼얹는 것으로 목욕을 마쳤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눈을 붙였다. 밀린 업무와 집 문제는 지금 당장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낮에 커피 세 잔을 먹은 노력이 무색하게 그는 어느 때보다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오랜만에 온돌방에서 잤던 때문인지 그는 유난히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온몸의 세포가 이불 밖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영훈은 오랜만에 느끼는 안락하고 편안한 기분을 회사에 출근함으로써 망치고 싶지 않았다. 회사를 쉬려면 정당하게 휴가를 내야 했지만, 상사에게 전화해 잔소리 들을 기력이 없었다. 그는 어디서 생긴 용기인지 알람을 전부 해제하곤 다시 잠들었다.

그가 다시 깨어난 시각은 정오였다. 영훈의 엄마는 어째서 그가 지금까지 자고 있던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지침과 피곤함에 이내 묻기를 그만두었다.

평소 6시에 일어나던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아침에 저지른 충동적인 선택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1시간 하고 30분을 더 꿈속으로 숨어들었다. 너무 오래 잔 탓인지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더 이상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하고 판단한 그는 그제야 이불 밖으로 나왔다.

1시 30분, 해가 중천에 떠있을 시간이지만 비가 아직 그치지 않은 탓에 구름이 끼고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비는 꽤나 세차게 몰아쳤지만 모두 처마에 막혀 마루 바깥쪽만을 적실 뿐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처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터무니없다 생각하며 한동안 멍때리기에 전념했다.

사실 그가 본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주변에 놀 거리도 없었고 회사로부터 연락이 올까 두려워 휴대폰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즐길 거리가 없는 만큼 그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없었다. 우선 그곳에는 상사와 일이 없었으며, 자신의 눈을 피로하게 하는 강렬한 원색과 도시의 소음이 없었다. 덕분에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빗소리에 묻힌 완전한 고요 속에서 몇 시간이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의 친구 민수가 찾아왔다. 그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에게 잘 곳을 제공해주진 못했지만, 그와 오래전부터 같이 어울려온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다. 영훈이 안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달려와 그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민수가 유일했다. 하지만 오늘은 민수도 할 말이 많았다. 그는 오늘 영훈이 회사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내팽개친 업무를 어느 정도 대신 해두었고 영훈이 회사를 빠진 이유를 묻는 상사에게 애써 잘 둘러대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무슨 일이야 일도 안나오고,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얼마나 진땀 뻘 줄 알아?”

걱정과 불만이 뒤섞인 어투로 민수가 말했다.

“미안, 여러모로 심란해서, 나도 모르게..”

영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니가 그러고도 어른이나, 우리 조카도 어린이집은 빠지지 않고 나가는건 아니?”

“씩씩한 우리 조카 반만이라도 닦아보는게 어떨겠어”

민수가 말했다.

“..”

영훈은 적당한 핑계가 생각나지 않아 최대한 미안함이 느껴지는 표정을 짓곤 머리를 연신 긁적였다.

다행히 민수의 잔소리는 거기서 더 이어지지 않았다. 애초에 그가 이곳에 온 까닭이 영훈에 대한 질타가 아니었음은 민수의 손에 들린 편의점 봉투 속 맥주 여러 캔과 소주 몇 병, 과자 몇 봉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도 민수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았기에 그의 질타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집까지 와준 민수가 고마웠다.

그 이후로 둘은 한참이나 담소를 나눴다. 둘 사이를 오가는 대화는 영훈의 일방적인 신세 한탄이었음에도 민수는 그의 술주정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회사에서 너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한참이나 맞장구만 쳐주던 민수가 말을 꺼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능력이 안되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거지”

“아니 난 그게 너의 재능이라고 생각해. 너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너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일 처리도 많이 늘었어.”

영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칭찬에 영훈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지만 술은 그가 그의 표정을 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끝내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걸 본 민수가 말을 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 자신을 조금은 좋게 봐도 된다는거야. 계속 네 못한 부분을 남하고 비교하면 누가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 그러다가 오늘처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날이 오는거야.

너도 충분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꾸 이상한 열등감 가지지 말라고.”

“알았어. 이젠 그만 징징거리라는거지?”

영훈은 평소 장난스러웠던 민수의 진지한 조언이 어색해 탄소리를 둘러댔다. 하지만 민수의 말이 그에게 와닿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 한 번만 힘들다고 집에 박혀서 찡찡대면 그 때는 안찾아올거야.”

민수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 후로 얼마나 마셨을까. 그는 또다시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잠에서 깼다. 이틀 연속으로 늦게 일어난 그는 일찍 일어나던 습관을 다시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물을 한 잔 들이켰다. 민수는 일찍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 듯했다. 전날 밤에 마셨던 술로 컨디션은 바닥이었지만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영훈은 간단한 세면을 마친 후에는 울렁거리는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 현관문 앞 우산꽂이에는 그가 가져왔던 우산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침에 가져간 것 같았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정도를 보아 이 정도 비는 맞으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영훈은 우산 없이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심어

놓은 나무들에서 피톤치드 향이 풍겼다. 영훈은 그 향에 숙취가 한결 나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비로 인해 약간의 한기가 느껴졌지만, 그럭저럭 참을만했다. 그는 그렇게 몇 분 더 동네를 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탈의 마무리는 주변에 준 피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우선 회사에 전화를 걸어야만 했다. 연락처에서 최부장의 연락처를 찾았음에도 통화버튼을 누르는 일은 그에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영훈은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통화버튼을 눌렀다.

통화 신호음이 4번 정도 울린 후 몇 초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어렵게 말을 뗐다.

“안녕하세요, 저 영훈입니다.”

“그래,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

누가 봐도 자신을 혼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딘가 통명스러운 어조로 최부장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민수 말 들으니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그건 그거고 휴가도 안내고 회사를 안나오는게 말이나 되는건가?”

최부장이 추궁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휴대폰 너머에 있는 최부장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임에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한껏 내리깔고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징계는 받아야 할 거야. 내일까지 시말서 제출하도록 해. 평소에 열심히 한 거 봐서 이걸로 끝내는거야”

“넵,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한 후 긴장이 풀린 영훈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는 마침내 그를 옥죄던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막상 부딪혀보니 별 것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곤 시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시말서를 쓰고 있다기엔 과하게 평온한 표정이었다. 옆에서 그를 쳐다보는 그의 어머니는 영훈의 갑작스런 감정 변화에 영문을 몰라 혀를 한 번 차고 말 뿐이었다.





